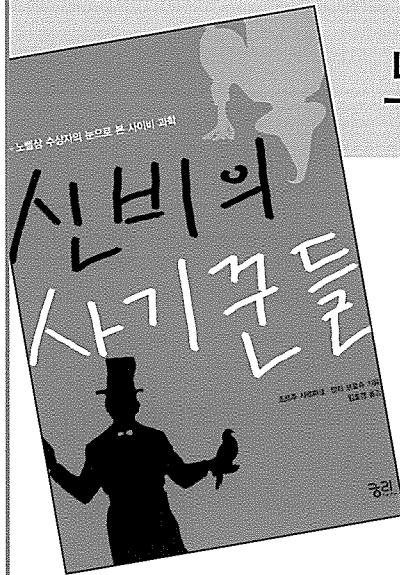


엉터리 ‘신비주의’ 실체

노벨상 수상자가 파헤친다



조르주 사르파크 · 앙리 브로슈 지음
임호경 옮김 / 궁리 2002년 펴냄

역술인이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버린 ‘첨단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씻어버려야 할 과거의 잔재이자 미신에 불과한 온갖 신비주의가 만연하고 있는셈이다.

물론 점술이나 초자연 현상을 비롯한 신비주의는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모든 자연 현상이 신비스러웠다. 그런 시대의 주술사, 마법사, 점성술사, 연금술사들의 무기였던 신비주의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실제로 고대의 주술사들은 별들의 움직임이나 기상 현상에 대한 남다른 관찰력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들이었다. 원시 농경인들은 그런 주술사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뿌리고, 사냥을 나가고, 엄청난 자연 재해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신비주의를 무작정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도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하게 되면서 소수 지배층의 권력과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로 둔갑해버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봉건 영주들과 폭압적인 종교지도

전국에 20만 명
이 넘는 역술
인과 8천 개가 넘은
역술 관련 인터넷 사
이트가 성황을 이루
고 있다고 한다. 대통
령 선거의 결과는 물
론이고 그 과정까지

도 정확하게 예언한

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신비주의의 덕택이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어둡고 불합리한 차별이 가득한 사회였다.

중세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과학자들도 자연을 관찰한다는 점에서는 고대의 주술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비법을 날낱이 공개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믿음과 추종을 요구하던 고대의 주술사들과 크게 달랐다. 과학은 명백한 근거를 밝힘으로써 이해를 요구하고, 신비주의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두려워해야 할 신비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이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와 신비주의의 병폐

과학적 지식이 일반화되면서 자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보편적인 과학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평등과 합의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사회 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물질적 풍요와 민주주의는 과학의 힘으로 얻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을 이용한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은 우리에게 극심한 환경오염,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그리고 도시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들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정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만 한다. 설사 그런 판단이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거 없는 신비주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무작정 맡겨 버릴 수는 없다.

점성술과 역술을 이용해서 운명을 알려주는 미래 예언은 애매한 언어나 확률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도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다. 예언가들의 예언은 현대적 의미의 통계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초능력이나 초자연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그 실체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만 한다.

프랑스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조르주 샤르파크와 앙리 브로슈는 신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애티는 노력으로 이 책을 썼다.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한 물리학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정도로 오늘날 신비주의에 의한 병폐는 심각하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미술, 예언, 초능력과 초자연 현상, 그리고 잘못된 과학을 근거로 하는 신비주의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노력했다.

숟가락 구부리기, 공중 부양, 숯불 위로 걷기와 같은 미술들은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속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미술사들의 묘기는 상당한 과학 상식과 고도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오락거리다. 훌륭한 미술을 개발한 미술사의 개인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미술사에 대한 보답은 충분하다. 미술사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식이 있는 미술사는 자신이 남과 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미술사의 비법을 모두 밝혀내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미술의 비법을 밝히고 나면 미술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과학적 상식 못 갖춘 사람들 의도적으로 속여 이익 추구

점성술과 역술을 이용해서 운명을 알려주는 미래 예언은 애매한 언어나 확률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도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다. 예언가들의 예언은 현대적 의미의 통계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역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기 상실을 뜻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현대 사회의 능력 있는 시민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역술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맡겨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액 탐지, 텔레파시, UFO, 염력, 질병 치유 능력, 투시력과 같은 초능력과 초자연 현상들은 과학적 검증을 회피하거나 재현성이 없는 것들이다. 초능력과 초자연 현상은 인류 문화의 발전에 명백한 기여를 해왔던 과학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만에 하나, 그런 초능력이나 초자연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그 실체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만 한다. 물론 그런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증명할 책임은 그런 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엉터리 과학으로 포장된 신비주의는 대부분 국제적 규모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엉터리 과학은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충분한 과학 상식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속임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그런 엉터리 과학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현대의 신비주의는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대중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넓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비주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자신의 이성을 충분히 훈련시켜야 하는 것은 지구촌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길뿐이다. 칼 세이건의 유명한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다. ☺

글_이덕한 | 서강대 교수 · 과학독서아카데미 부회장